절터는 잠기고 유물은 흩어졌어도 사자후는 쩌렁쩌렁

37 물에 잠긴 절터 땅에 남은 흔적 충주 정토사지

법경대사자등탑비 옆의 느티나무 그늘에서 더위를 식히는 마을 어르신들.

법경대사자등탑비는 충주댐 수몰을 피해 절골마을로 자리를 옮겼다.

정토사지는 물속에 있습니다. 그 주소는 충북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마을 이름은 절골인데 하곡마을이라고도 부릅니다. 신라말 고려 초기에 이어 정토사가 폐사되기까지는 마을 전체가 절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의 지형은 개천안(開天安)이라 하여, 하늘이 열려 편안한 곳으로 꼽혔던 곳이고 토정 이지암도 은거했던 곳이라 하니 산자수명(山紫水明)은 거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절터는 충주댐으로 수몰됐지만 마을의 풍광은 수려합니다. 인근에 충주리조트가 생겨 외지인의 발길이 분주해졌어도 언제나 평온하고 고즈넉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장마철 무더위가 전국을 달구는 7월의 한 낮, 국토의 중심부에 자리한 정토사지를 찾아 갑니다. 절터가 수몰되기 전 발굴조사를 하여 유물들을 수습해 절골 마을 솟대거리로 옮긴 것은 1983년부터 2년간입니다. 솟대거리에 당도하면 첫눈에 이 마을 사람들이 온순하고 옛것을 숭상하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솟대거리에는 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를 살다간 고승 법경대사(法鏡大師)의 자등탑비(慈燈塔碑, 보물 제17호)와 홍법국사실상탑(弘法國師實相塔, 국보 제102호)의 모형이 파란 잔디밭에 서 있습니다. 모두 정토사지의 유물들입니다. 솟대거리를 복원하여 만든 여러 개의 솟대와 독립유공자 이기진 선생 추모비, 효부와 이장의 송덕비 등이 도열되어 있습니다.

두툼한 보호각 속의 자등탑비가 우뚝해 보이는 언덕을 올라갑니다. 어른 두 사람이 껴안아야 할만치 몸통이 굵은 느티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느티나무 그늘에는 평상이 제격이어서 여염집 사랑방만한 평상이 놓여 있고 동네 어르신 다섯 분이 앉고 누워서 더위를 식히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십니다.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충주호 쪽으로는 정토사지 발굴조사에서 수습한 석재유물들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초석과 대문의 기둥 아래 놓았던 신방석(信防石)입니다. 도로와 연접하는 마을 쪽으로는 법경대사 자등탑비와 홍법국사 실상탑 모형이 서 있습니다. 헌걸찬 모습의 거북이 떠받치고 있는 자등탑비는 높이가 3.15m이고 폭은 1.42m입니다. 몸돌에는 온통 총알자국이 선명하여 60년 전 이 땅의 전쟁을 온 몸으로 겪은 상처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비문은 최언위가 짓고 글씨는 당대의 명필 구족달(仇足達)이 썼는데 이 두 사람은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오진탑비문'을 짓고 쓴 '콤비'이기도 합니다.

한 시절 대덕의 생애가 기록된 탑비가 변해가는 세월 속에 전란의 참상을 목격하고 그 상처를 몸에 새기고 서 있으니 가슴이 아립니다. 이 탑비는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이 배수진을 치고 결사항쟁 하던 탄금대와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아마 그 때의 핏빛 어린 하늘도 다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탑비는 그런대로 잘 보존 되었는데 부도는 못 찾은 건가요?"

어르신들의 대화가 끊어진 틈을 타 질문했습니다.

"아니지, 일제 때 왜놈들이 가져갔어."

"일본 어딘가에 있겠군요."

"있기만 하다면 다행이지만, 한 20년 전에 충주 MBC에서 추적을 했는데 못 찾았지. 일정 때 왜놈들이 탑을 가져가는 것을 목격한 할머니께서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셨고 그것을 토대로 일본에 가서 추적을 했는데 허탕 쳤어."

순례자의 질문에 시원시원 대답을 해 주시는 분은 자등탑의 밀반출을 목격했던 이자원 할머니(10년 전에 별세)의 손자 이수욱(70)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르신은 홍법대사실상탑의 모형이 세워진 유래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홍법대사실상탑과 탑비(보물 제359호) 역시 일본에 의해 1915년에 경복궁으로 옮겨졌고 지금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탑과 탑비를 제자리에 모셔야 한다고 관계 기관에 탄원서를 내고 그랬지. 정부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뭐, 그 일을 다 얘기할 순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모형이라도 세우게 된 거야."

"어차피 지금 이 자리도 원래의 자리는 아니겠군요. 정토사지는 수몰되었으니까요."

"물론 이 자리는 아니지. 하지만, 실상탑의 자리는 수몰되지 않았어. 저기 마을 위를 봐. 저기 집이 한 채 있고 그 뒤 풀밭이 있지? 거기가 실상탑이 서 있던 자리야."

그랬습니다. 정토사지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거기 빈 절터에 있던 자등탑비와 석재들은 솟대거리로 올라 왔습니다. 그 이전 일제강점기에는 자등탑은 일본으로 도둑맞았고 실상탑과 탑비는 강제로 서울로 이사를 가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평온하기 이를 데 없어 보이는 하천리 솟대거리가 온통 상실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7월의 뙤약볕이 더 자글거립니다.

이수욱 어르신과 풀 더미를 헤치고 찾아간 실상탑이 서 있던 자리. 아래로 충주호의 시원한 풍경이 펼쳐지고 멀리 산봉우리들이 연잎처럼 솟아 있습니다. 홍법국사의 부도탑이 놓였던 지대석이 잃어버린 시간들을 안으로 삼키며 칡넝쿨에 묻혀 있습니다. 주변에는 홈이 깊게 파인 석재와 용도를 알 수 없는 석재들이 널려 있고 실상탑과 탑비가 있던 자리임을 알리는 표지석도 풀 더미에 묻혀 있습니다.

법경대사자등탑비 수몰피해 '이사' 총알자국도 선명

홍법국사실상탑 모형 원래위치 놔두고 길가에 세워

"모형 탑을 세울 때 이곳에 세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처음엔 그러기로 했었지. 그런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어찌어찌 하여 저기 길 옆에 세우게 됐어. 그 때 충주시에서는 이곳 원래 위치로 다시 옮겨 준다고 했는데 그만 흐지부지 된 거야. 이 산이 우리집안 종중산인데 문중에서도 땅을 내놓기로 했었어. 물론 지금이라도 탑을 옮겨 온다면 땅을 내놓을 거고."

마을 사람들은 조상들의 유물을 모시는 일에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관련 기관의 협조가 부족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실상탑이 있던 자리에 서니 옛날 정토사의 사역이 매우 컸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지금도 탑이 있던 자리에서 왼쪽은 큰 절골 오른쪽은 작은 절골이라고 부릅니다. 몇 채의 펜션과 사과밭을 앞에 두고 있는 탑지에도 7월의 태양이 자글거립니다.

법경대사는 신라 제49대 헌강왕 5년(879)에 태어나 고려태조 24년(941)에 입적했습니다. 20세에 출가하여 해인사에서 구족계를 받았으며 당나라로 구법유학을 떠나(906) 도건(道乾) 대사에게 가르침을 받고 924년에 귀국했습니다. 그가 귀국한 때는 고려가 개국하여 태조 왕건이 나라를 다스는 때였습니다. 태조는 대사의 귀국 소식을 듣고 반기며 특사를 보내 영접토록하고 국사로 모셨습니다. 당시 정황이 자등탑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조 임금이 특사를 보내어 교외에서 영접하게 하였으니, 융성한 총애의 영광이 당시로는 으뜸이었다. 다음날 구중(九重)으로 맞아들여 3등의 품계를 내리고 지극한 마음으로 찬양하여 국사로서 우대하였다.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에 덮인 안개를 흩어주는 설법을 할 때에는 자주 불자(拂子)를 흔들었고 임금은 스님의 도풍을 흠망하여 희색이 만만(滿滿)하였다.<중략> 임금의 불심은 더욱 돈독해지고 스님을 자주 친견하려는 마음이 깊고 간절하여 가까운 곳인 중주(中州) 정토란야(淨土蘭若)에 주지토록 청하였다.(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고려편1, 가산문화연구원)

법경대사가 정토사에 머물러 절을 중창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임금의 깊은 신심과 존경심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문에 나오는 '중주'와 홍법국사 실상탑비의 비문 초입에 나오는 '중원부(中原府)'는 지금의 충주로 이 지역이 국토의 중심임을 감안하면 지명이 이해됩니다. 많은 고승들이 그랬듯이 법경대사도 입적을 앞두고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비문의 말미를 읽습니다.

열반에 들기 전날 제자가 묻기를 "화상께서 세상을 떠나시려는 마당에 법등을 누구에게 부촉하시렵니까?"하니, 스님이 말씀하시길 "등등마다 스스로 동자(童子)가 있어 스스로 점화한다."고 하였다. 다시 묻되, "저 동자는 어떻게 펴 보이십니까?" 하니, 답하되 "별이 청천에 가득 포열되어 있으니,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하 하고 말씀이 끝나자 단정히 앉아 열반에 드시니, 속년은 63세요 법랍은 41이었다.

법경대사의 뒤를 이어 정토사에 법등을 밝혔던 홍법국사는 정확한 생몰연대를 알 수 없습니다. 관련 자료가 없고 비문에서조차 연대 부분이 마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출가하여 정진하다가 중국으로 가서 유학했습니다. 지금의 절강성에서 복건성에 이르는 지역을 두루 여행하며 구법행에 정성을 바쳤습니다. 귀국하여 고려 성종과 목종의 귀의와 존경을 받았음을 비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비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홍법대사의 입적 장면을 읽습니다.

대중들에게 이르시기를 "무릇 있는 바 삼라만상은 모두가 허망한 것이다. 이 모든 제상(諸相)이 상(相)이 아닌 줄로 터득 하여야 하니, 너희들은 구씨(龜氏)의 종지를 추락 시키지 말고 삼가 취봉(鷲峰)의 교(敎)를 수호하라"는 말씀이 끝나자마자 가부좌를 맺고 단정히 앉아 입적하였다.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고려편2, 가산문화연구원)

'구씨의 종지'란 가섭이 전한 선을 말하고 '취봉의 교'란 영취산에서 설하신 가르침 즉 교학을 뜻합니다. 이 교학의 으뜸은 영취산에서 설한 일승묘법의 <법화경>입니다. 법경대사와 홍법국사의 시대에 정토사는 웅장했을 겁니다. 여러 왕의 존경을 받았던 그들의 수행은 높고 높아 수많은 사람들이 향기로운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절터마저 물에 잠겨 있고 대덕들의 유물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과정이 불가항력이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과거를 살았던 조상들에게 면목이 없고, 후세를 살아갈 자손들에게는 더 없이 큰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쩌렁쩌렁 울리는 대덕들의 사자후를 들을 귀를 여는 일이 지금 우리의 몫입니다.

임연태 (시인 · 본지논설위원)

50여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역학·역술의 모든것 완결판 셋트(5종)!출간

본 册 5종만 습득하면 누구나 四柱박사, 성명학박사, 인생철학박사가 될수 있다. 역학자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교과서이다.
어느 다른 册 어느누구에게 학습받을 필요없이 기초부터 응용, 감정, 판단까지 알기쉽게 엮었다.

鬼神도哭할 神秘의册
四柱運法
성도이름도나이도생일도 묻지 않고 알아낸다

잠간
지금도 돈주고 행운의 숫자를 받으십니까?
나만의 행운의 숫자를 가질 수 있는 비법이 이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50년 경력
命理學·姓名學·地理學者/ 編著者
秀岩 李昌澔
전화 : 02-962-9944~5
FAX:02-967-9944
H.P : 011-292-9940

출판및판매처: (주)반도문화사
전화 : 02)723-1001(대) 팩스 : 02)720-2032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3-1 진양B/D 2층
유명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농협 : 301-0050-6260-11 우리은행 1002-729-773427 예금주 : 정석주
본사로 직접 구입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四柱運法 (사주운법)
▶ 세계최초로 성도 이름도 나이도 생일도 묻지 않고 알아낸다.
▶ 한날 한시에 태어난 四柱가 한쪽은 나랏님 한쪽은 거지
▶ 부귀, 권세, 실패, 빈곤, 강도, 살인자 ▶ 행운의 숫자가 운명을 좌우한다.
▶ 역대 대통령님들의 四柱八字評 ▶ 금년운, 내연운, 이달운, 오늘운 해평
▶ 나에게 맞는 옷색갈, 옷색갈이 맞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 중요한 업무를 보는데 실패다.

정가 16,000원, 4×6배판 100 미색모조, 250면

最新 四柱博士 (사주박사)
▶ 四柱學의 모든 것을 기초부터 응용, 해설, 감정, 평가까지 30여권의 책중 핵심을 골라 요점을 기록하였다. 이 한권의 책만 습득하면 어느 누구나 100% 四柱博士가 될수 있다.
▶ 보기쉽고, 알기쉽고, 이해하기 쉽게 최선을 다하였다.

정가 38,000원, 4×6배판 80 미색모조, 540면

最新 周易姓名學 (주역성명학)
▶ 최초로 한문, 한글, 영어 발음을 응용 해설하였다.
▶ 五行편과 수리편으로 분리하여 보기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한 페이지에 한 운명의 뜻풀이로 엮었다.
▶ 성명학으로만 응용하여도 명사가 될수 있는 것이다.

정가 38,000원, 4×6배판 100 미색모조, 300면

작명하는데 필수적인 귀중한 책
最新 人生哲學 百科 (인생철학백과)
▶ 성공과 행복 소망을 이루는 길이 있다.
▶ 인생 전반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 침대방향, 책상방향, 금고방향, 카운터방향등
▶ 이사방향, 집좌향, 주택 묘지운법

정가 52,000원, 4×6배판 코트지 600면 2도인쇄 양장제본

最新 원본 그림 唐四柱 한글해석판
▶ 원본의 당사주를 핵심적으로 개선하여 어느 누구나 보기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해설을 전면적으로 한글풀이로 엮었다.
▶ 초년, 중년, 말년운과 부모, 형제, 부부자식. 재물. 직업 수명운 등을 자상하게 해설하였다.

정가 52,000원, 국배판(가로 310×세로220) 260면 칼라(상)좌철 제본

당사주 책 내용중 일부